

증가

# 제 1 장 사람의 본분

## 제 1 절 출가의 생활

1. 내 제자가 되려는 자는 가족과 세속적인 생활과 재산을 버려야 한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위해 이 모든 것을 버린 자는 나의 제자요, 출가자라고 불린다.

비록 나의 옷자락을 잡고 따라와 내 발자국을 밟고 있어도, 욕망으로 마음이 흐트러져 있으면, 그 사람은 나로부터는 멀다. 비록 겉모습은 출가자이나 그는 가르침을 보고 있지 않다. 가르침을 보지 않는 자는 나를 보지 못하기 때문이다.

비록 나로부터 몇 천리 떨어져 있다 하더라도 마음이 바르고 고요하며 욕망을 떠나 있으면, 그는 바로 내 옆에 있는 자이다. 가르침을 따르면 그 사람은 그 속에서 나를 보기 때문이다.

2. 출가자는 다음의 네 가지 조건을 생활의 기본으로 삼지 않으면 안된다.

첫째, 형겹으로 이어만든 옷을 입어야 한다. 둘째, 탁발에 의하여 먹을 것을 구해야 한다. 셋째, 나무 밑이나 돌위를 거처로 해야한다. 넷째, 형제들이 배설한 오줌으로 만든 약만을 써야 한다.

발을 들고 집집마다 다니며 먹을 것을 탁발하는 결식의 수행은 타인이 시켜서 하거나 어려운 사정이 생기거나 핏에 빠졌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자유의지에 따라 하는 것이다. 이렇게 결식 생활을 함으로써 이 세상의 모든 고통을 면할 수 있고 미혹을 떠나 깨달음을 성취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출가하고 있으면서도 욕망을 떠나지 않고, 성념으로 마음이 흐트러져 오관을 지킬 수가 없다면 그야말로 부질없는 일이다.

3. 스스로 출가자라고 믿고, 사람들에게도 자신이 출가자라고 대답하는 자는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어야 한다.

“나는 출가자로서 해야할 일은 반드시 지킨다. 이 출가자의

## 사람의 본분

본분으로서 나에게 보시하는 사람에게 감사하고 성실하고 착하게 살면서 커다란 그들이 행복을 얻게 하고, 나 자신의 출가한 목적을 다하도록 하리라.”

그러면, 출가자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남에 대해 부끄러워 하는 것과 스스로 부끄러워 하는 것을 갖추어 몸, 입, 그리고 뜻에 의한 세가지 행위와 생활을 청정케 하고, 능히 오관의 입구를 지켜서 향락에 마음을 뺏기지 않는다. 또 자신을 추켜올리고 남을 비방하는 일을 하지 않고, 태만하여 잠만 자는 일이 없어야 한다.

저녁때는 고통히 앉아 참선을 하거나 잠자리에 들기전에 보행을 하며, 밤중에는 오른쪽 옆구리를 바닥에 대고 두 발을 포개고 누워서 일찍 일어날 시간을 생각하며 조용히 잠들고, 새벽녘에 일어나 정좌한 채 고통히 참선을 하거나 보행을 해야 한다.

또 행주좌와가 늘 바른 마음이어야 한다. 조용한 곳을 찾아 자리를 하고, 몸과 마음을 똑바로 하고, 탐냄, 성냄, 어리석음, 잠, 들뜬 마음, 뉘우침, 의심을 떠나서 마음을 청정하게 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와 같이 마음을 통일하여 뛰어난 지혜를 일으켜 번뇌를 끊고 열심히 깨달음으로 향해야 하는 것이다.

4. 만약에 출가자의 몸이면서 탐욕을 버리지 않고, 성냄을 떠나지 않으며, 원함과 질투, 자만과 오만 같은 과오를 감추는 것을 그만두지 못한다면 마치 양날의 칼을 옷속에 품고 있는 것과 같다.

승복을 입고 있다하여 모두 출가자가 아니고, 탁발하고 있다하여 모두 출가자가 아니고, 경전을 읽고 있다하여 모두 출가자가 아니니, 그런 자는 그저 겉모습만의 출가자일 뿐 지푸라기보다도 더 나을 것이 없다.

출가자의 격식을 모두 갖추었다고 해도 겉모습만 승려일 뿐이라면 번뇌를 없앨 수는 없다. 갓난아에게 승복을 입혀도 출가자라고 부를 수 없는 것과 같다.

마음을 바르게 통일하여 제어할 수 있고, 지혜를 밝게 하고 번뇌를 없애서 오로지 깨달음으로만 향하는 사람이라야 출가자 본연의 길을 걸어가는 진정한 출가자라고 말할 수 있다.

## 사람의 본분

진정한 출가자는 비록 피가 마르고 뼈가 부서지도록 노력을 하면서 깨달음을 성취하고야 말겠다고 결심하고 최선을 다해 정진한다. 그런 사람은 마침내 출가의 목적을 이루고 청정한 행을 성취할 수가 있다.

5. 출가자의 사명은 또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는 일이다. 모든 사람들에게 가르침을 설하고, 무지몽매한 자의 눈을 뜨게 하고, 잘못된 견해에 빠진 사람의 마음을 바르게 하고, 신명을 바쳐 가르침을 널리 베풀기 위해 어디든지 가야 한다.

그러나 이 가르침을 설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므로 가르침을 설하기를 원하는 자는 모두 부처님의 옷을 입고, 부처님의 방에 들어가서 부처님의 자리에 앉아야 한다.

부처님의 옷을 입는다는 것은 겸손하고 온화하게 참는 마음을 갖는 일이다. 부처님의 좌에 앉는다는 것은 모든 것을 공한 것으로 보고, 집착을 갖지 않는 것이다. 부처님의 방에 들어간다는 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대자비한 마음을 품는 것이다.

6. 또 이 가르침을 만족스럽게 설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네 가지에 유념하지 않으면 안된다. (1) 몸으로 하는 자신의 행동에 대하여, (2) 대중들에게 하는 말에 대하여, (3) 가르침의 동기와 성취하려는 목적에 대하여, (4) 대비(大悲)에 대해서이다.

첫째, 가르침을 잘 설하기 위해 출가자는 무엇보다 인내의 대지에 머물러서 온화하여 거칠지 않고, 극단을 피하고 널리 알려지기를 바라서는 안 된다. 모든 것은 공한 것이어서 집착해야 할 것도 없다고 생각하여, 여기에 마음자리를 두고 몸의 행을 부드럽게 하여야 한다.

둘째, 출가자는 온갖 처지에 놓인 사람들에게 골고루 마음을 쓰며 상황에 조심해서 대처해야 한다. 권세있는 자나 사악한 생활을 하는 자를 가까이 하지 않으며, 이성을 가까이 하지 않고 사람들을 친절하게 대해야 한다. 모든 것들은 인연에 의해 일어난다는 도리를 생각하여서 이것을 마음자리로 하고, 타인을 모욕하지 말고 멸시하지 말며 타인의 과오를 들추지 않도록 한다.

셋째, 자기의 마음을 평안하게 유지하고, 부처님을 대할 때는 자애로운 아버지로 대하고, 도를 닦는 사람들은 스승으로 대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비심을 일으켜 평등하게 가르침을 설하여

사람의 본분

야 한다.

넷째, 부처님과 같이 자비의 마음을 최대한 발휘하여 도를 구하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그들이 언젠가는 반드시 깨달음을 추구하기를 마음속으로 기원하고, 그들의 참된 이익을 위해서 희생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 제2절 불자의 길

1. 불교를 믿는 자란 삼보 즉 불, 법, 승을 믿는 자를 말한다.

그러므로 불교를 믿는 자는 부처님을 흔들림 없이 믿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믿고 배우며, 계율을 지키며 승단에 대해 믿음을 가져야 한다.

재가자로서 지켜야 할 다섯 가지의 계란 첫째, 살생하지 말것. 둘째, 도둑질하지 말것. 셋째, 간음하지 말것. 넷째, 거짓말하지 말것. 다섯째, 음주하지 말라는 것이다.

재가자는 스스로 삼보에 대한 믿음을 지니고 재가자로서의 계

를 지킴과 동시에 타인에게도 이 믿음과 계를 지니도록 해야 한다. 친척과 친구, 지인들이 같은 믿음을 지닐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도 또한 부처님의 자비를 받을 수가 있다.

재가자가 삼보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재가자로서의 계를 지키는 것은 깨달음을 얻기 위함이므로 재가의 애욕의 생활속에서도 애착에 얽매이지 않도록 해야 한다.

재가자는 부모와도 결국 헤어지지 않으면 안된다. 가족과도 결국 떨어지지 않으면 안된다. 이 세상도 결국 떠나지 않으면 안된다. 헤어지지 않으면 안되는 것, 가지 않으면 안되는 것에 마음이 얽매이지 않고, 헤어짐이 없는 열반의 세계에 마음을 두어야 한다.

2.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고, 믿음이 두터워 물러나는 일이 없으면 즐거움은 자연스럽게 솟아난다. 이 경지에 들면 무엇에서나 빛을 찾고, 즐거움을 찾아낼 수가 있다.

이렇게 믿는 마음은 맑고 부드러워, 늘 인내하고 다툼을 싫어

## 사람의 본분

하고, 사람들을 괴롭히지 않고, 불법승을 생각하므로, 기쁨은 자연히 솟어나 깨달음을 위한 빛을 어느 곳에서나 볼 수 있다.

믿음으로써 부처님과 일체가 되고, ‘나’라는 생각을 떠나 있고 내것을 탐하지 않으니 생활에 두려움이 없고, 비방을 당해도 두려워하지 않게 된다.

불국토에 태어난다는 것을 믿고 있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가르침의 진실과 존귀함을 믿고 있으므로 사람들 앞에 나가서도 두려움없이 자기가 믿는 바를 말할 수 있다.

또 불제자의 마음은 자비로 충만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에게 좋고 싫은 생각이 없이 대접하며 좋고 싫음을 떠나 있기 때문에 선행을 베푸는 마음은 순수하고 정당하고 행복하다.

불제자는 순경을 만나든 역경을 만나든 믿음을 키우는 데는 상관없이 없다. 마음을 겸손하게하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공경하고 말한대로 행하고, 행한대로 말하며 말과 행동이 일치하며 밝은 지혜로써 사물을 보고, 마음이 태산처럼 움직이지 않는다면 깨달음의 길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또 비록 탁한 세상에서 부정으로 더럽혀진 사람들과 어울리면  
서 어려운 경우에 처하여도 부처님을 믿는 마음을 가슴에 지닌  
다면 그들이 악행을 떠나 선행을 쌓도록 인도 할 수 있다.

3. 그러므로 누구든지 자기 스스로가 가르침을 듣기를 원하  
지 않으면 안된다.

누군가가 ‘이 타오르는 불속으로 들어가면 가르침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한다면, 그 불 속으로 들어갈 각오를 갖지 않으면  
안된다. 온통 불타고 있는 이 세상에 살아도 부처님의 이름을  
듣는다는 것만으로도 흡족하고 불길 속에 뛰어들 가치가 있기  
때문이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고자 하는 사람은 이기적이거나 방자  
하면 안되고 모든 사람에게 친절하게 대해야 한다. 공경할 만한  
사람을 공경하고 섬겨야 할 사람을 섬기며 깊은 자비의 마음으  
로 타인을 대하여야 한다.

불제자는 이와 같이 다른 사람의 행동을 마음에 두지 말고 무  
엇보다도 자신의 마음을 닦아야 한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고

사람의 본분

실천하며 다른 이들을 부러워하지 않고 다른 이들의 말에 현혹되지 않으며, 남이 하는 대로 따라가서는 안된다.

부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자기 일만을 생각하기 때문에 마음이 좁고 작아서 언제나 안달한다. 그러나 부처님을 믿는 사람은 큰 대비심으로 온갖 것을 포용하고 마음이 넓고 커서 사소한 일에 구애받지 않는다.

4. 또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고 믿는 사람은 일찍부터 이 몸을 무상한 것으로 보고, 괴로움이 생기는 근본으로 보며, 악의 근원으로 보기 때문에 이 몸에 집착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 몸을 귀중하게 보양하는 것을 게을리 하지 않는다. 그것은 쾌락을 탐하기 위한게 아니라, 도를 닦고 도를 전파하기 위함이다.

이 몸을 잘 지키지 않으면 수명을 다할 수가 없으며, 수명을 다하지 못하면 가르침을 행할 수도 없고 또한 가르침을 사람들에게 널리 전할 수도 없다.

강을 건너려는 자는 뗏목을 잘 돌봐야 하고, 먼 여행을 하려는 사람은 타고갈 말을 잘 돌봐야 하듯이, 가르침을 성취하고자 하는 사람은 제 몸을 귀중하게 잘 지켜야 한다.

또한 부처님의 제자는 옷을 입을 때도 화려하게 꾸미지 않으니, 몸의 치부를 가리거나 더위와 추위를 막기 위함이 아니면 안된다.

불제자는 음식을 들 때에도 즐기기 위한 것이 아니라, 몸을 지탱하고 보양하여 가르침을 받아 남에게 설하기 위함 이어야 한다.

불제자는 집도 마찬가지로 몸 보호하기 위해서 집안에 들어가 사는 것일 뿐 허영 때문이어서는 안된다. 깨달음의 집에 살아야 하는데, 세속적 번뇌의 도적을 막고, 잘못된 가르침의 풍우를 피하기 위함이라고 생각하지 않으면 안된다.

불자는 이와 같이 자신만을 위하지 말고 무슨 일이든지 사물의 가치를 잘 평가해서 오직 깨달음과 가르침을 위하고 타인을 위하여 불법을 전파할 목적에 맞게 살아가야 한다.

## 사람의 본분

그러므로 집에서 가족들과 함께 있어도 그 마음은 잠시도 가르침을 떠나서는 안 된다. 지혜와 자비의 마음으로 가족과 함께 하며 그들에게 방편으로 믿음과 구원의 길을 가르치는 것이다.

5. 또한 재가자에게는 부모를 봉양하고 가족에게 봉사하고, 자기를 보살피고 부처님을 시봉하는 여러 가지 마음가짐이 있다.

즉 부모를 봉양할 때에는 모든 생명에 대해 자비를 베풀도록 해야 한다. 처자와 화평하게 살려면 애욕과 이기적인 안락에서 빠져나오지 않으면 안 된다.

음악을 듣고 있을 때에는 더 즐거운 가르침의 노래를 생각하며, 편안히 방안에 있을 때는 현자가 세상의 온갖 더러움과 소란을 피해서 안식을 구하는 참선하는 방을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된다.

불제자가 타인에게 보시할 때는 모든 것을 버려서 탐욕을 없애야 하며, 군중 속에 있을 때에는 마음이 현인들과 함께 해야 하며, 재난을 만났을 때에는 어떠한 일에도 동요하지 않는 평온

한 마음을 지녀야 하고 어떤 장애도 극복해야만 한다.

또 부처님에게 귀의할 때에는 부처님의 지혜를 구하려고 애써야 한다.

불법에 귀의할 때에는 가르침의 창고 속으로 들어가 바다와 같이 크고 넓은 지혜를 얻기를 원해야 한다.

승단에 귀의할 때에는 사리사욕에 휘둘리지 않고 평화를 사랑하는 우애정신을 구해야 한다.

또한 옷을 입을 때는 선과 겸양을 옷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대소변을 할 때에는 탐냄, 성냄, 그리고 어리석음의 오염을 없애기를 원해야 한다.

높은 곳을 오르는 길을 보면 위 없는 도에 올라 미혹의 세계를 넘는 것이라 생각하고, 낮은 곳으로 내려가는 길을 보면 상냥하고 겸손하게 심오한 가르침 속으로 들어가기로 원해야 한

사람의 본분

다.

또 다리를 보면 가르침의 다리를 만들어 사람들을 건너게 하는 것을 바라야 한다.

시름에 슬퍼하는 사람을 보면 세상은 항상 변하고 바뀌어 비탄스러운 것이라는 사실을 함께 슬퍼하는 마음으로 동정해야 한다.

쾌락의 생활에 빠진 사람을 보면 헛된 생활을 떠나 참된 깨달음을 얻기를 원한다.

맛있는 음식을 보면 절제할 줄을 알고 욕심을 적게 하여 집착을 떠나기를 원하며, 맛없는 음식을 보면 세속의 욕심을 영원히 멀리하기를 원해야 한다.

또한 여름에 더위가 심할 때에는 세속적 욕망의 열기에서 벗어나 청량한 깨달음의 맛을 얻기를 원하며, 겨울에 추위가 심할 때에는 부처님의 따뜻한 대비심을 원해야 한다.

경전을 읽을 때에는 모든 가르침을 간직하여 잊지 않고 실천 하겠다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

부처님을 생각할 때에는 제 눈이 부처님의 눈과 같아지기를 원해야 한다.

밤에 잘 때에는 몸, 입, 그리고 뜻의 작용을 멈추어 마음을 청정하게 하기를 원하며, 아침에 눈을 뜨면 그 날에 일어날 모든 일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마음이 맑아지기를 원해야 한다.

6. 또한 불교를 믿는 자는 모든 것이 있는 그대로의 모습, 즉 ‘공(空)’의 가르침을 알고 있으므로 세상사나 인간들 사이의 여러 가지 일들을 경시하지 않고 그대로 받아들여 그것을 깨달음의 길로 나아가는 데 알맞은 수단으로 삼아야 한다.

인간의 세상사는 미혹이며 의미가 없고, 깨달음의 세계는 존귀하다고 하는 두 극단으로 나누지 말고, 세상의 모든 일들 속에서 깨달음의 길을 맛보아야 한다.

무명으로 뒤덮인 눈으로 보면 세상은 의미없고 잘못된 것으로

사람의 본분

보이나 지혜를 가지고 밝게 바라보면 그대로가 깨달음의 세계가 된다.

사물 자체에는 의미가 있는 것과 없는 것, 선한 것과 악한 것이라는 이분법적 구분이 없다. 둘로 나누는 것은 사람들이 차별하는 마음을 갖기 때문이다.

분별을 떠난 지혜로 비추면 모든 것은 다 존귀한 의미를 갖는 것이 된다.

7. 불교를 믿는 자는 모든 것에 두루 존재하는 순수한 단일성을 느껴 그런 마음으로 자신을 낮추고 대비심을 베풀며 타인에게 봉사한다.

그러므로 불교를 믿는 자는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고 정중하게 남에게 봉사하는 마음을 간직한다. 그들은 풍요로운 대지와 같아서 모든 것을 차별없이 길러주고 모든 것에 봉사하면서도 불평하지 않고 온갖 괴로움을 끈기있게 참으며, 항상 게으리지 않고 모든 가난하고 험벗은 사람들에게 부처님의 가르침의 씨앗을 뿌리는 데서 최상의 기쁨을 찾는 마음을 가진다.

이와 같이 어려운 사람에게 자비를 베푸는 마음을 가진 사람은 자애로운 어머니가 되고 모든 사람들을 귀하게 대하고 모든 사람들을 벗으로 보며 부모처럼 공경한다.

그러므로 불교를 믿는 자에게 비록 수천 명의 사람들이 원한을 품고서 적대시하며 해하려 해도 마음대로 해칠 수는 없다. 이를 테면 어떠한 독이라도 큰 바닷물을 전부 오염시킬 수 없는 것과 같다.

8. 불교를 믿는 자는 명상과 반성과 감사하는 삶을 습관으로 하여 자신의 행복을 즐기게 된다. 부처님을 믿는 사람은 그의 믿음이 곧 오로지 부처님의 자비의 힘에 의한 것이며 부처님의 은혜임을 알게 될 것이다.

번뇌의 진흙 속에는 신심의 씨앗은 없으나, 이 진흙 속에 부처님의 자비로 믿음의 씨앗이 심어져서 그 마음을 정화하고 마침내 부처님을 믿는 마음이 생겨난다.

에란다라는 독나무의 숲에 찬다나라는 향나무의 새싹이 날리가 없고, 번뇌의 가슴 속에 부처님을 믿는 씨앗이 싹틀 리가 없

사람의 본분

다.

그러나 실제로 환희의 꽃이 싹터서 번뇌의 가슴 속에 피어난다 해도 그 뿌리는 그곳이 아닌 다른 곳에 있으니 바로 부처님의 가슴 속에 있는 것이다.

부처님을 믿는 자도 ‘나’라는 생각이 앞서면, 탐냄, 성냄 그리고 어리석음으로 남을 질투하고 증오하며 해롭게 한다. 그러나 부처님에게 귀의하면 지금까지 앞에서 말했던 위대한 불사(佛事)를 이룩하게 된다. 그것이야말로 정말 불가사의라 아니 할 수 없다.

### 제3절 생활의 지침

1. 재난이 마음 속에서 일어난 것은 모르고, 동쪽이나 서쪽에서 오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마음의 내부를 닦지 않고 외부로부터 재난이 온다고 밖을 지키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오랜 옛날부터 세상 사람들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양치질하고 세수하고 동서남북 상하의 욕방에 절을 해서 어느 쪽에서도

재앙이 오지 말기를 빌며 하루가 안전하게 지나가기를 비는 풍습이 있다.

그러나 부처님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으신다. 올바른 진리의 육방을 향하여 존경을 표하고 현명하고 덕있게 행동하여 재난을 막도록 가르치신다.

이 육방을 지키려면 먼저 네 가지 행의 더러움을 벗기고, 네 가지 악심을 그치고, 가옥이나 재산을 기울게 하는 육구(六口)를 막아버리지 않으면 안된다.

네 가지 행의 더러움이란 살생, 도둑질, 간음 그리고 거짓말이다.

네 가지 악심이란 탐냄, 성냄, 어리석음 그리고 두려움이다.

가옥이나 재산을 기울게 하는 육구란 ‘술을 마시고 어리석은 짓을 하는 일, 밤새도록 놀고 돌아다니는 일, 음악이나 연극에 빠지는 일, 도박에 빠지는 일, 나쁜 친구와 사귀는 일, 그리고 업무를 태만히 하는 일’ 이다.

## 사람의 본분

이 네 가지 행위의 더러움을 벗기고, 네 가지 악심을 그치고, 가옥이나 재산을 기울게 하는 욕구를 막고, 그리고 진실한 욕망에 예배하는 것이다.

이 진실한 욕망이란 첫째, 동은 아버지와 자식의 도리이고, 둘째, 남은 사제간의 도리이고, 셋째, 서는 부부의 도리이고, 넷째, 북은 친구간의 도리이고, 다섯째, 하는 고용주와 고용인의 도리이고, 여섯째, 상은 가르침을 따르는 불제자로서의 도리이다.

우선 동방에서 부모와 자식의 도리라는 것은, 자식은 부모에게 다섯 가지의 것을 행해야만 한다. 즉 부모를 봉양하고, 부모를 위해 일하고, 집안을 지키고, 집안의 대를 잇고, 조상에게 제사를 지내는 것이다.

한편, 부모는 자식에게 다섯 가지의 것을 행해야만 한다. 즉 악을 멀리하게 하고, 선을 행하도록 하고, 지혜와 기술을 익히도록 하고, 결혼을 시키고, 적당한 시기에 집안의 대를 잇도록 해야 한다. 부모와 자식이 서로 이 다섯 가지를 지키면 가정은 평화로워지며 풍파가 일지 않는다.

다음으로 남방에서 스승과 제자의 도리라는 것은, 제자는 스승에게 자리에서 일어나 맞이하고, 가까이서 잘 보필하고, 열심이 청해 듣고, 공양을 게을리 하지 않고, 공손하게 가르침을 받는 것이다.

한편 스승은 제자에게 스스로 몸을 바르게 하여 가르치고, 스스로 배우고 익힌 것을 전부 바르게 전수하고, 잘 터득한 것을 잊지 않도록 시키고, 잘 이끌어 주어 이름을 빛내도록 하고, 어디에서도 이익과 존경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렇게 하면 사제간의 도리가 지켜져 사제간의 관계가 원만해진다.

다음으로 서방에서 부부간의 도리라는 것은, 남편은 아내에게 존경심을 품고, 예절을 갖추며, 정조를 지키고, 가정을 맡기고, 때로는 살림에 필요한 도구나 장식품 등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 한편, 아내는 남편을 위해 애써서 가정을 보살피고, 친척들을 법도에 맞게 대접하고, 정조를 지키며, 집안의 재산을 잘 지키고, 가정이 잘 유지되도록 해야만 한다. 부부가 이렇게 본분을 지키면 가정이 화목해지고 다툼은 일어나지 않는다.

다음으로 북방에서 친구간의 도리라는 것은, 상대방의 부족한

## 사람의 본분

부분을 채워주고, 상냥한 어투로 말하고, 서로의 이익을 도모하며, 상대방의 입장을 잘 이해하고, 정직하게 대하여만 한다.

또한 친구가 나쁜 길로 빠지지 않도록 힘쓰고, 만일 나쁜 길로 빠질 경우에는 그의 재산을 지켜주고, 또 걱정이 있을 때에는 상담의 상대가 되어주고, 역경에 처했을 때에는 도움의 손길을 뻗쳐서, 필요한 경우에는 그의 부인과 자식을 보살피도록 해야만 한다. 이렇게 하면 친구간의 우정은 오래 지켜지고 행복은 더욱 커진다.

다음으로 하방에서 고용주와 고용인의 도리라는 것은, 고용주는 고용인에게 다음의 다섯가지를 지켜야만 한다. 즉 그의 힘에 맞추어 일을 시키고, 좋은 음식과 급여를 제공하고, 병이 들었을 때는 친절히 간병하고, 맛있는 음식을 나누어 주며, 필요할 때에는 휴양을 시켜야만 한다.

한편, 고용인은 고용주에게 다섯 가지의 마음가짐으로 봉사해야 한다. 즉 아침에는 고용주보다 일찍 일어나고, 밤에는 고용주보다 늦게 잠들고, 어떠한 것에도 정직하고, 일에 잘 숙련되도록 하며, 고용주의 명예를 훼손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렇게 하면 고용주와 고용인의 사이에 분쟁이 사라지며 평화롭고 근심이 없다.

다음으로 상방에서 불제자의 도리라는 것은, 가르침을 준 스승에게 몸도 입도 마음도 인정으로 넘쳐서, 정중하게 스승을 대하며, 가르침을 듣고 따르고, 공양해야만 한다.

한편, 가르침을 설하는 자는, 악을 멀리하고, 선을 행하고, 선한 마음으로 자비를 베풀고, 사람의 길을 설하고, 가르침을 잘 이해시켜, 사람들이 평안의 경지에 들어 가도록 해야만 한다. 이렇게 하면 귀한 문중의 가풍에 중심이 서게 되어 아름답게 번창할 것이다.

육방을 예방한다는 것은 이와 같이 육방을 예방하여 재난을 피하려는 것이다. 그것은 사람으로서 육방을 지켜서 안에서 일어나는 재난을 스스로 방지하도록 하는 것이다.

2. 사람은 친해야 할 사람과 친해서는 안될 사람을 잘 분별해야 한다.

## 사람의 본분

친해서는 안될 사람이란 탐심이 깊은자, 말이 교묘한 자, 아첨하는 자, 낭비하는 자이다.

친해야 할 사람이란 진실하게 도움이 되는 자, 괴로움과 즐거움을 함께 나누는 자, 조언에 인색하지 않은 자, 동정심이 많은 자이다.

안전하게 사귄 만한 참된 친구는 어떤 사람인가? 항상 정도를 철저히 고수하며, 뒤에서 걱정해 주고, 재난을 만났을 때에 위로해 주며, 필요할 때에는 조력을 아끼지 않고, 비밀을 지키고, 늘 바른 방향으로 인도해 주는 사람이다.

스스로 이와 같은 친구를 얻는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나, 또한 자기도 이와 같은 친구가 되도록 마음먹지 않으면 안된다. 태양이 풍요로운 대지를 따뜻하게 하듯이 좋은 친구는 그 바른 행위로 세상을 비춘다.

3. 부모의 큰 은혜는 아무리 노력해도 다 보답할 수 없다. 설령 백 년간 오른쪽 어깨에 아버지를 태우고, 왼쪽 어깨에 어머니를 태우고 다녀도 그 은혜를 다 갚을 수는 없다.

또 백 년동안 밤낮없이 향기로운 목욕물로 부모의 몸을 씻어 드리고 모든 공양을 다한다 하여도, 또 부모에게 옥좌를 마련해 드리고 왕처럼 섬기며 이 세상의 모든 호사를 다 시켜드려도, 여전히 그 은혜에 다 보답할 수는 없다.

그러나 만약 부모를 인도하여 부처님의 가르침을 믿게 하고, 잘못된 길을 버리고 바른 길로 들어가게 하고, 탐욕을 버리고 보시를 즐겨할 수 있게 한다면, 그때서야 비로소 그 큰 은혜에 보답할 수가 있는 것이다. 어찌면 그 이상이라고도 말할 수 있다.

부모를 공경하고 즐겁게 헤드리는 집에는 부처님께서 축복해 주신다.

4. 가정은 마음과 마음이 가장 가깝게 접촉하면서 사는 곳이기 때문에 화목하면 화원처럼 아름다우나, 만약에 마음과 마음의 조화를 잃으면 격한 풍파를 일으켜서 파멸을 초래하는 것이다.

만약 가정에 풍파가 일면 다른 사람을 탓하지 말고, 먼저 자

사람의 본분

신의 마음을 반성해서 바르게 걸어가야 한다.

5. 옛날에 한 신심이 두터운 젊은이가 있었다. 어릴 때 부친이 세상을 떠나 모친과 함께 단란한 생활을 하던 중 새로 며느리를 들여 세 사람이 살게 되었다.

처음에는 서로 화목하고 평화스럽게 지냈지만 아주 자그마한 일로 오해가 생겨 고부간에 갈등이 생기고 풍파가 일기 시작했다. 갈등이 더욱 심해지자 결국 어머니는 젊은 두 사람을 뒤로 남긴 채 집을 떠나게 되었다.

어머니가 따로 산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젊은 며느리는 아들을 낳았다. “시어머니와 함께 있을 때에는 잔소리만 들어 좋은 일이 별로 없었는데, 따로 사니 이렇게 좋은 일이 생겼다.” 라고 며느리가 말했다는 소문이 홀로 사는 시어머니의 귀에 들어갔다.

이 소리를 들은 시어머니는 대단히 화가 나서 소리를 질렀다. “시어미를 쫓아내고도 좋은 일이 생겼다면, 이 세상은 잘못된 게 아닌가! 요즘 세상은 정의가 사라져 버렸다.”

그래서 시어머니는 “이렇게 된 이상 정의를 장사 지내야겠다.”  
라고 울부짖으며 미친 사람처럼 묘지로 달려 갔다.

이런 일을 알게 된 인드라신은 곧 시어머니 앞에 나타나서 자  
초지종을 묻고 여러가지로 타일렀으나 시어머니는 마음의 화를  
풀지 않았다.

인드라신은 마침내 “그렇다면 그대의 마음이 후련해지도록 지  
금부터 꼴도 보기 싫은 새 며느리와 손자를 태워 죽여 주겠다.  
그래도 좋겠는가?” 라고 말했다.

이 말을 듣자 시어머니는 너무나도 놀라 자기의 잘못을 깨닫  
고 화낸 것을 사죄하고 며느리와 손자를 살려달라고 빌었다. 이  
무렵 아들과 며느리도 지금까지 어머니에게 저질렀던 잘못을 뉘  
우치고 어머니를 찾아 묘지로 달려오는 중이었다. 인드라신은  
이 고부를 화해시켰고, 그 후로 가족이 다시 모여 행복하게 살  
게 되었다.

스스로가 정의를 버리지 않는다면 정의는 영원히 사라지지 않  
는다. 정의는 종종 사라지는 듯이 보이지만 그 자체가 결코 사

사람의 본분

라지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바른 마음을 잃었기 때문에 그렇게 보일 뿐이다.

마음과 마음의 갈등은 그야말로 무서운 불행을 가져오는 것이다. 조그마한 오해도 결국 커다란 재난을 불러온다. 가정생활에 있어서 이 런 점은 특히 주의하지 않으면 안된다.

6. 가정생활에서 매일의 생활비를 충당하는 문제는 매우 중요하므로 가족들은 누구나 개미나 벌처럼 부지런히 일하지 않으면 안된다. 부질없이 남의 힘에 의지하거나 베풀어 주기를 바라는 안된다.

한편으로 부지런히 일해서 얻은 재산은 자기 한 사람의 것이라 생각해서는 안 된다. 그 중 얼마간은 타인을 위하여 나누어 주고, 또 얼마간은 저축하여 비상용으로 대비하고, 사회를 위하여, 가르침을 위하여 쓰는 것을 기뻐해야 한다.

이 세상에서 엄밀하게 말해 ‘내 것’이라 할 만한 것은 하나도 없다. 모든 것은 다 오직 인연에 의하여 자기에게 온 것이며, 잠깐동안 맡겨져 있을 뿐이다. 그러므로 하나라도 중요하게 여

겨 소홀히 해서는 안된다.

7. 아난다가 우다야나왕의 아내인 사마바티 왕비로부터 500 벌의 옷을 공양받았을 때에 아난다는 이것을 흔쾌히 받아들였다.

왕이 이 말을 듣고 혹시 아난다가 탐욕으로 받은 것이 아닌가 라고 의심하였다. 왕은 아난다를 찾아가 물었다.

“존자는 500 벌의 옷을 한꺼번에 받아서 어떻게 할 것입니까?”라고. 아난다는 대답하였다. “대왕이시여! 많은 비구들이 떨어진 옷을 입고 있으므로 그들에게 이 옷을 나누어 주겠소.” 라고.

“그렇다면 떨어진 옷은 어떻게 합니까?” “떨어진 옷으로 이불을 만들지요.” “그러면 헌 이불은?” “베갯이로.” “헌 베갯이는?” “방바닥에다 깔지요.” “그 헌것은?” “발걸레를 만듭니다.” “낡은 발걸레는 어떻게 합니까?” “걸레를 만들겠소.” “헌 걸레는?” “대왕이시여! 우리들은 그 걸레를 조각으로 만들어서 진흙과 섞어 집을 지을 때에 벽속에다가 넣지요.”라고 하였다.

## 사람의 본분

물건은 중하게 써야 한다. 아껴서 쓰지 않으면 안된다. 이것이 내것이 아닌 즉 맡겨 놓은 것을 쓰는 방법이다.

8. 부부의 관계는 오직 좋은 대로 맺어 있는 것은 아니며, 또 육체가 같은 곳에 사는 것만으로 다한 것도 아니다. 부부는 함께 하나의 가르침에 의하여 마음을 기르도록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일찌기 부부의 귀감이라고 칭찬받던 어느 노부부는 세존에게로 와서 이렇게 말했다. “세존이시여! 우리들은 어렸을 때부터 서로 알게 되어 부부가 되었으나, 지금까지 마음의 어느 구석에도 정조의 흐림을 깃들여 본 일은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이와 같이 부부로서 일생을 보낸 것처럼, 후세에 가서도 부부로서 만날 수 있게 가르쳐 주십시오.”

세존은 대답하기를, “둘이 다 신앙을 함께 하라. 하나의 가르침을 받아서 똑같이 마음을 기르고, 똑같이 보시하고 지혜를 같이 하면 후세에 가서도 똑같이 한 마음으로 살 수가 있을 것이다.”

9. 깨달음의 길에서 남과 여의 구별은 없다. 여자도 도를 구하는 마음을 일으키면 깨달음을 구하는 자가 될 수 있다.

프라세나지트 왕의 딸이며 아요디아 왕의 비인 말리카부인은 바로 이런 깨달음을 구하는 자로서 세존의 가르침에 깊이 귀의하여 세존 앞에서 다음의 열 가지 서원을 세웠다.

세존이시여! 저는 지금부터 깨달음에 이르기까지, ① 받은 계를 범하지 않겠습니다. ② 손위의 분들을 멸시하지 않겠습니다. ③ 모든 사람들에게 성내지 않겠습니다.

④ 사람의 모습이나 형상, 소유하는 것에 질투하지 않겠습니다. ⑤ 어떤 물건에도 인색하지 않으며 절대로 아까워하는 마음을 일으키지 않겠습니다. ⑥ 자신을 위하여 재물을 모으지 않고, 받은 것은 모두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고 그들을 행복하게 해 주겠습니다.

⑦ 저는 모든 사람을 공손하게 대하고, 보시하고, 상냥하게 말하며, 남의 입장이 되어 생각하되 결코 자신만의 편익을 위하여 이런 일들을 하지 않을 것이며, 차별없는 마음으로 모든 사

사람의 본분

람들을 이롭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⑧ 가족이 없어 기댈 곳 없는 사람이나 감옥에 갇혀있는 사람, 또는 병들어 괴로워 하는 사람이나 온갖 고통에 시달리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그들을 위하여 바른 도리와 이치를 설하여 들려 주고 고통에서 구해 주겠습니다.

⑨ 살아있는 생명체를 잡거나 학대하거나 또는 여러가지 계를 범하는 사람을 보면 내 힘이 닿는 한 꾸짖을 일은 꾸짖고 타이를 것은 타일러서 그 잘못을 그치도록 하겠습니다.

⑩ 바른 가르침을 잊지 않겠습니다. 바른 가르침을 잊은 자는 모든 것에 퍼져가는 진실한 가르침으로부터 멀어져 깨달음의 언덕으로 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또한 이 불행한 사람들을 구하기 위하여 세가지의 원을 세웠다. ① 저는 모든 사람들이 평안해 지도록 봉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선근으로써 어떠한 생을 받아도 그곳에서 바른 가르침의 지혜를 얻게 될 것 입니다.

② 바른 가르침의 지혜를 얻고 나서는 싫증내지 않고 사람들에게 설하여 들려 주겠습니다.

③ 제가 얻은 바른 가르침은 제 육신과 생명과 재산을 다 던져서라도 꼭 지키겠습니다.

가정생활의 참된 뜻은 서로 손잡고 도를 닦아나가는 데에 있다. 평범한 여성이 도를 닦아나가려는 마음을 일으켜서 이 말리카 부인처럼 큰 원을 갖는다면 진실로 훌륭한 불제자가 될 것이다.

## 제 2 장 불국토의 건설

### 제 1 절 화합하는 법우들

1. 황량하기 그지없는 칠흑같이 어두운 별판에 아무 빛도 비치지 않는데 무수한 생물들이 우글거리며 살고 있다고 상상해보자.

그러나 너무나 어둡기 때문에 옆에 누가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서로 부딪치기라도 하면 겁에 질려 달아나고 각자 홀로 외로움에 떨면서 꾸물거리고 있다. 이 얼마나 가련한 광경인가.

그 때 갑자기 빛이 비쳐 왔다. 홀연히 나타난 위대한 사람이 햇불을 비추었던 것이다. 캄캄하던 들판이 순식간에 대낮처럼 환해졌다.

그러자 지금까지 어둠을 더듬으며 고독 속에 방황하고 있던 생물들은 주변을 바라보더니 제 주위에 자기와 같은 이들이 많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크게 안도하며 기쁜 마음으로 우정을 나눌 것이다.

지금 이 ‘별판’이라는 것은 무지의 암흑 속에 사는 인생이요, 암흑은 바로 지혜의 빛이 없는 것을 말한다. 마음에 지혜의 빛이 없는 자는 고독과 공포 속에서 헤맨다. 서로 만나도 알아보고 화합할 줄 모르므로 홀로 태어나 외롭게 죽는다. 그런 자들이 의기소침 하고 겁이 많은 것은 당연하다.

“위대한 사람이 햇불을 들고 나타났다.” 라는 것은 부처님이 사람의 형상으로 나타나서 지혜와 자비의 빛을 이 세상에 비추시는 것을 말한다.

이 빛으로 인해 사람들은 비로소 자기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새롭게 발견하고서 기뻐하며 인류애와 화합하는 정신을 깨닫는다.

수 천만의 사람들이 한 사회에 모여 살고 있어도 서로 잘 지내고 동정하는 마음이 없으면 진정으로 우정이 있는 사회는 아니다.

참된 공동체 사회란 믿음과 지혜가 빛나서 서로 알고 믿으며 화합하는 곳을 말한다.

불국토의 건설

실로 화합이 참된 사회나 단체의 생명이며 또 참된 뜻이다.

2. 그러나 세상에는 세 가지 유형의 단체가 있다. 첫째는 권력이나 재력이나 힘있는 지도자의 권위에 기초하여 모이게 되는 단체이다.

둘째는 이해관계가 같아서 구성원들이 서로의 이익을 만족시켜 주는 한 다투지 않아도 되는 단체이다.

셋째는 훌륭한 가르침을 중심으로 하고, 화합을 생명으로 삼는 단체이다.

이 세 단체 가운데 셋째가 가장 참된 단체이다. 이 단체는 마음이 하나 되어 생활하고 있어서 그 속에는 한 마음으로 사는 화합정신과 여러 가지 공덕이 생기기 때문이다. 여기에는 화합과 만족이 있고 행복이 있다.

깨달음은 산에 내린 빗물이 흘러서 계곡의 물이 되고 차례로 큰 강으로 이어지다 드디어는 대해에 흘러드는 것과 같다.

거룩한 가르침의 비는 못사람들의 조건이나 상황을 가리지 않고 누구에게나 똑같이 내린다. 여러 가지 수준과 환경의 사람들도 똑 같은 가르침의 비에 젖어서 작은 모임에서부터 점차로 보다 더 큰 조직과 사회로 흘러들어 드디어 깨달음의 대양에 자신이 들어가 있음을 발견한다.

이와 같은 사람들의 마음이 물과 젖처럼 융합하면 그곳에서 아름다운 형제애가 있는 단체가 생겨난다.

그러므로 바른 가르침은 실로 이 지상에 아름다운 참 단체를 만들어 내는 근본적인 요건이며, 그것은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서로를 발견하게 하는 빛이요, 서로 적응하면서 사람들의 온갖 굽어진 마음을 부드럽게 화합시키는 힘이다.

진실한 이런 단체는 부처님의 완벽한 가르침을 근본적인 힘으로 하기 때문에 승단이라 말할 수 있다.

이러한 조직에서는 누구나 부처님의 가르침을 지키고 자기 마음을 이 가르침에 의지하여 길러내야 하기 때문에 부처님의 승단은 원칙적으로는 지상의 모든 인간을 다 포함해야 한다. 하지

## 불국토의 건설

만 현실적으로는 믿음을 함께 하는 사람들 뿐이다.

3. 믿음을 함께 하는 사람들의 모임인 승단에는 두 가지 형태가 있다. 재가자에게 가르침을 베푸는 자와 이런 스승들에게 필요한 옷과 음식을 제공하여 성원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 둘은 서로 손잡고 승단을 유지하고 확장하여 가르침을 널리 보급하고 오래 전해지도록 노력해야 한다.

승단을 완벽하게 하려면 구성원들 모두가 완벽하게 화합해야 한다. 승려는 재가자를 가르치고, 재가자는 가르침을 주는 승려들을 믿고 공경해야 이 둘 사이에 화합이 있게 되는 것이다.

승단의 구성원들은 자애로운 마음으로 서로 화합하여 믿음을 함께 하는 사람들끼리 살아가는 행복을 기뻐하며, 마음이 하나가 되도록 노력해야만 한다.

4. 승단화합의 여섯 가지 원칙이 있다. 첫째, 성실한 말을 하며, 둘째, 성실하고 자비로운 행동을 하며, 셋째, 성실함과 자비의 뜻을 지키며, 넷째, 공동으로 얻은 것은 서로 똑같이 나누어 가지며, 다섯째, 똑같이 청정한 계를 지키며, 여섯째, 서로

올바른 견해를 갖는 것이다.

이 가운데 올바른 견해가 중심이 되며 다른 다섯 가지를 포섭하는 것이다.

승단을 번영시키는 두 종류의 일곱 가지 원칙이 있다. 첫번째는 단체로서 지켜야 할 원칙이다.

- (1) 서로 자주 모여서 가르침을 듣고 토론한다.
- (2) 위 아래가 마음을 터놓고 서로 화합하며 서로 존경한다.
- (3) 가르침을 존중하고 규율을 존중하여 함부로 고치지 않는다.
- (4) 나이든 이나 젊은이나 서로 예로써 대한다.
- (5) 성실성과 존경심을 마음에 깊이 간직한다.
- (6) 고요한 곳에서 마음을 맑게 하고, 남을 앞세우고 자신은

불국토의 건설

뒤로하여 진리를 따른다.

(7)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여, 오는 자를 정중하게 대접하고, 병든 자를 정성으로 간호한다.

이 일곱 가지를 지키면 승단은 결코 쇠퇴하지 않는다.

그리고 둘째는 각 개인이 지켜야 할 원칙이다.

(1) 청정한 마음을 잘 지켜서 너무 많은 일들을 원하지 않는다.

(2) 성실한 마음을 간직하고 탐욕을 버린다.

(3) 인욕을 지켜서 다투지 않는다.

(4) 침묵을 지켜서 잡담하지 않는다.

(5) 규범을 지켜서 거만하지 않는다.

(6) 하나의 마음을 지켜서 이교도의 가르침에 따르지 않는다.

(7) 일상생활을 질박하고 검소하게 해야 한다.

이 일곱 가지 원칙을 지키면 승단은 쇠퇴하지 않는다.

5. 앞에서도 말한 바와 같이 승단은 화합을 생명으로 하는

것이며 화합이 없는 승단은 승단이라 부를 수 없으므로 각자는 불화가 생기지 않게 조심해야 한다. 만일 불화가 생길 경우에는 재빨리 불화를 제거하도록 노력하지 않으면 안된다. 불화는 머지 않아 조직을 무너뜨리기 때문이다.

피는 피로써 지울 수 없고, 원한은 원한으로써 갚을 수 없다. 원한을 잊어버리는 길만이 원한을 푸는 유일한 방법이다.

6. 옛날에 장재라는 왕이 있었는데, 호전적인 이웃나라의 브라흐마닷타 왕에게 나라를 빼앗겼다. 장재왕은 왕자와 왕비가 있었는데 한참 동안 이 둘을 숨겨 두었다가 붙잡혔지만 다행히 왕자는 도망칠 수가 있었다.

왕자는 부왕의 생명을 구할 기회를 엿보았지만 속수무책이었다. 부왕이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는 날, 왕자는 변장을 하고 형장에 갔으나 굴욕을 참고 불운한 부왕의 불쌍한 모습을 지켜보고 있을 수 밖에 없었다.

왕은 군중 속에 있는 왕자를 발견하고서 “오래 추적해서는 안 된다. 서둘러서도 안된다. 원한의 마음을 없애야만 원한은 사라

## 불국토의 건설

지는 것이다.” 라고 독백처럼 중얼거렸다.

그 뒤에 왕자는 오랫동안 복수할 길만을 찾으며 지냈다. 그런 왕자에게 드디어 기회가 찾아왔다. 그는 왕궁에서 시종자리를 얻게 되어 왕에게 접근할 수 있었고 시간이 흘러 신임까지 얻게 되었다.

어느 날 왕이 사냥을 나가게 되었을 때 왕자는 복수할 기회를 노리다가 피를 내어 왕을 군사들로부터 떼어내고 외진 곳으로 인도하여 둘이서만 온 산속을 헤매고 다녔다. 그러다가 피로에 지친 왕은 휴식을 취하다 신임하는 이 왕자의 무릎을 베고 잠깐 잠이 들었다.

다시 없이 좋은 기회라고 생각한 왕자는 칼을 빼서 왕의 목을 겨누었다. 하지만 그 순간 끌려갔던 부왕이 처형되던 순간에 하신 말씀이 생각나서 찌르지 못하고 망서리고 있던 차에, 돌연히 왕은 눈을 뜨며 하는 말이 방금 장재왕의 왕자에게 목을 찔릴 뻔한 무서운 꿈을 꾸었다고 하였다.

그 말을 듣자 왕자는 황급히 왕을 잡아 누르고 칼을 휘두르며

이제야 비로소 오랜 원한을 풀 때가 왔다고 소리치면서 자신의 신분을 밝혔다. 하지만 그는 이내 칼을 버리고 왕 앞에 무릎을 꿇었다.

왕은 왕자에게서 죽음을 앞둔 장재왕의 말을 전해 듣고 크게 감동하였고 그 자리에서 용서를 구하였다. 그 뒤로 왕자에게는 예전의 나라를 돌려주었고 오래도록 두 나라는 친교를 이어갔다.

장재왕의 유언 중에 “오래 추적해서는 안 된다.” 라는 말은 원한을 길게 이어가지 말라는 뜻이다. “서둘러서도 안된다.”라는 것은 서둘러 우정을 저버리지 말라는 뜻이다.

원한은 본래 원한에 의하여 진정되는 것은 아니고 원한을 잊었을 때만이 진정된다.

화합의 올바른 가르침에 기초를 둔 승단에서는 우애를 위한 이 이야기에 담긴 정신을 두고 두고 음미할 필요가 있다.

승단의 구성원들만이 아니라 세상살이를 하며 사는 모든 사람

불국토의 건설

들도 이 이야기에 담긴 정신을 거듭 되새기고 실천해야 하리라.

## 제2절 부처님의 나라

1. 앞에서 말했듯이 화합을 바탕으로 하여 생활하면서 부처님 가르침을 전파하는 사명을 잊지 않을 때에 승단은 차차 그 반경을 넓히면서 가르침을 보다 더 널리 펼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마음을 수양하고 깨달음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 진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세상을 지배했던 것은 무명과 애욕의 마왕이 이끄는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의 마군이었다. 이제 이들이 물러나고 여기에 지혜와 광명과 믿음과 환희가 그 지배권을 장악하게 되는 것이다.

악마의 영토는 탐욕과 어둠이며, 다툼과 전쟁, 칼과 유혈로 가득차 있다. 그리고 또한 편견, 질투, 증오, 시기, 아부, 은닉, 비방이 판치는 곳이다.

이제 거기에 지혜가 빛나고 자비의 빔줄기가 고루 적시며 신앙의 뿌리가 뻗어 환희의 꽃이 피고 향기를 퍼뜨리면 악마의 영토는 일순에 불국토가 된다.

상쾌한 미풍과 나무가지에 핀 한 떨기 꽃이 봄이 왔음을 알리듯이 한 사람이 깨달음을 열면 산천초목, 산하대지, 모두가 자연히 새로운 생명을 얻어 맥박치는 불국토가 된다.

왜냐하면 마음이 청정하면 그가 있는 주변도 역시 청정해지기 때문이다.

2. 가르침이 퍼져있는 나라에서는 사람들의 마음이 순박하고 평온하게 된다. 참으로 부처님의 자비는 지치는 줄도 모르고 모든 사람들을 복되게 해 주시고, 부처님의 대비심의 광명이 마음에 차있는 모든 부정한 것들을 몰아내기 때문이다.

이 순박하고 청정한 마음은 깊은 마음, 고귀한 진리의 길을 따르는 마음, 보시하는 마음, 계를 지키는 마음, 참는 마음, 노력하는 마음, 고요한 마음, 지혜의 마음, 자비의 마음이 되며 또 다시 여러 방편을 찾아서 사람들에게 도를 닦게 하는 마음도 되기 때문에 여기에 불국토가 훌륭하게 세워진다.

처자와 함께 살고 있는 가정도 훌륭하게 부처님이 깃드는 가정이 되고, 사회적 차별을 받아 고통을 면할 수 없는 국가라도

불국토의 건설

가족에 정신을 지닌 화합체로 바뀐다.

탐욕에 더럽혀진 사람에 의하여 세워진 궁전은 부처님이 머물 곳은 못 된다. 천정으로 달빛이 스며드는 허술한 집이라도 마음이 청정한 사람이 주인이라면 그 곳이 바로 부처님이 깃드는 곳이다.

단 한 사람의 청정한 마음 위에 세워진 불국토는 믿음을 함께 하는 이들을 불러 들여서 차츰 그 수를 더해간다. 가정으로, 마을로, 거리로, 도시로, 나라로 나아가 전 세계로 차례차례로 퍼져나간다.

법의 가르침을 넓혀가는 열의와 성실성은 바로 부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마음이다.

3. 이 세계는 어느 한쪽에서만 보면 탐욕과 불의로 가득 차고 피로 얼룩진 세계로 보이지만 부처님의 진리를 믿게 되면 피는 젖으로 변하고 탐욕은 자비로 바뀌어져 악마의 나라가 마침내 청정한 불국토로 변한다.

한 자루의 국자를 들고 큰 바다의 물을 다 퍼내는 일은 불가능한 일로 보이겠지만, 태어나고 죽기를 반복하며 영겁에 걸쳐서 반드시 이 일을 성취하고야 말겠다고 서원하는 것은 부처님의 진리를 믿는 자의 마음이다.

부처님은 피안에서 기다리고 있다. 피안은 깨달음의 세계이며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과 고뇌가 없는 나라이다. 그곳에는 지혜의 빛만이 빛나고 자비의 빗물만 촉촉히 내리고 있다.

그곳은 고통받고 슬픔에 빠진 자들의 피난처이며, 불법의 가르침을 펼치는 데 지친자가 들어가 되는 휴식처이다.

이 청정한 나라는 무한한 빛과 영원히 사는 생명이 있는 곳이다. 이 휴식처에 도달한 사람은 두 번 다시 미혹한 세상으로 되돌아오지 않게 된다.

실로 이 청정한 나라는 꽃이 지혜의 향기를 하늘에 뿜어내고 새들이 거룩한 법문을 노래하는 곳이며, 모든 사람들이 최후에 돌아가야 할 바로 그곳이다.

## 불국토의 건설

4. 그러나 이 나라는 휴식처이기는 하나 느긋하게 게으름을 피울 곳은 아니다. 향기로운 화원은 태평스레 게으름을 피우기 위해 있는 놀이터가 아니라 부처님의 진리 전파의 사명을 계속 수행할 수 있는 정력과 열의를 회복하는 휴식처이다.

부처님의 일은 영원히 끝나지 않는다. 사람이 살아가고, 생명체가 존재하는 한, 그리고 인류가 이기적이고 더러운 마음을 지니고 제멋대로의 세상과 상황을 만드는 한 부처님의 사명은 멈추지 않는다.

지금 부처님의 위대한 힘에 의하여 피안의 정토에 들어간 불자들은 또 다시 각자의 인연있는 세계로 돌아가서 부처님의 일에 참여하여 그 사명을 다해야 한다.

하나의 등불이 켜지면 차례차례로 다른 등에 불이 옮겨지듯이 부처님의 자비의 등불도 사람들의 마음에서 마음으로 잇따라 붙여져서 영원히 꺼질 줄을 모를 것이다.

부처님의 자비심을 체득한 불자들도 사람들의 마음에 광명을 놓고 청정하게 하는 부처님의 일을 맡아서 한 세대에서 다른 세

대로 계속 전하여 영원히 부처님의 나라가 영광으로 빛나도록 일해야 한다.

### 제 3 절 불국토를 떠받치는 것

1. 우다야나 왕의 아내인 샴바바티 왕비는 깊이 세존에게 귀의하고 있었다.

왕비는 궁궐의 깊은 곳에 살며 외출하지 않았다. 시녀인 곱추 웃다라는 기억력이 좋아서 언제나 세존의 법좌에 끼어 가르침을 받으면 세존의 말씀을 그대로 왕비에게 전하여 이것에 의하여 왕비의 지혜와 신앙은 점점 그 깊이를 더해갔던 것이다.

그런데 후궁인 둘째 왕비 마간디야는 샴바바티 왕비를 시기하여 죽이려고 우다야나왕에게 온갖 중상모략을 하였다. 결국 이에 넘어간 왕은 샴바바티를 죽이려고 하였다.

샴바바티는 조금도 동요하지 않고 고요한 모습으로 왕 앞에 나아갔다. 그러자 왕은 자비가 넘쳐나는 왕비의 모습에 질려서 그만 살의를 잃어버려 죽일 수가 없었다. 자제력을 회복한 왕은 왕비에게 자신의 불신과 무례한 행동을 사과하였다.

## 불국토의 건설

마간디아는 질투가 점점 더 심해져서 분노를 견디지 못하고 왕이 출타한 어느날 어느 못된 자들과 일을 꾸며 샤마바티의 궁실에 불을 질렀다. 왕비는 조금도 평온을 잃지 않고 침착하게 겁에 질려 우왕좌왕하는 시녀들을 다독이며 세존의 가르침을 깊이 마음에 담고서 두려움 없이 조용히 숨을 거두었다. 시녀인 웃타라도 불 속에서 함께 죽었다.

부처님의 재가 여인들 중에 샤마바티는 자비로운 마음이 으뜸가는 사람이고, 웃타라는 법문을 가장 성실하게 들은 여인으로 사람들의 칭송이 자자했다.

2. 석가족의 왕자 마하나마는 세존의 사촌동생인데 세존의 가르침을 믿는 마음이 참으로 두터웠고 가장 성실한 제자 중의 한 사람이다.

어느 날 이웃한 코살라국의 포악한 바이루다카왕이 석가족을 공격해 왔다. 마하나마 왕자는 석가족이 멸망당할 위기에 놓이자 직접 그 왕을 만나 자기 백성들만은 살려달라고 청하였다. 하지만 포악한 왕이 들어주지 않자 적어도 자기가 이 근처에 있는 연못 속에 잠겨있을 테니 그 동안 성문을 열어 달아날 수 있

는 자들만이라도 도망치게 해 달라고 부탁했다.

사람이 물 속에 가라앉아 있을 동안이라면 아주 짧은 시간이겠거니 생각한 왕은 이것을 허락하였다.

마하나마는 연못 속으로 들어가고 성문은 열려 사람들은 안전하게 도망쳤다. 그런데 아무리 기다려도 마하나마는 떠오르지 않았다. 그가 못 속으로 들어가 머리를 풀어 버드나무 뿌리에 묶어놓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자신의 죽음으로써 사람들을 구했던 것이다.

3. 옷팔라바르나는 그 지혜가 으뜸가는 비구니며 지혜에 관한 한 마우드갈야야나(목건련)에 견줄 만한 인물이었다. 그녀는 비구니들 중에서도 가장 뛰어난 지도자로서 비구니들을 거느리고 교화하기를 잠시도 쉬지 않았다.

데바닷타는 사악하고 잔인해서 아자타사트루 왕의 마음을 어지럽혀서 부처님의 가르침에 반역하도록 충동질하였지만 나중에 아자타사트루 왕은 정신을 차려 뉘우치고 우호관계를 끊고 부처님의 겸손한 제자가 되었다.

## 불국토의 건설

그 뒤 어느 날 데바닷타가 아자타사트루 왕을 만나려고 성을 찾아 갔다가 성문에 이르렀으나 들여보내 주지 않아 성문 앞에 어찌지 못하고 앉아 있었다. 그는 때마침 웃팔라바르나가 성문을 나오는 것을 보고는 불같이 화가 나서 무서운 힘으로 때려 중상을 입혔다.

웃팔라바르나는 견딜 수 없는 아픔을 참아가며 승방으로 돌아왔다. 이 때 여러 비구니들이 몰여와서 위로하자. “자매들이여! 사람 목숨이란 알 수 없는 것이다. 모든 것이 다 무상하고 무아이다. 깨달음의 세계만이 고요하고 의지할 곳이다. 부지런히 노력하고 힘 써서 도를 이루도록 하여라.” 라고 가르치고 조용히 숨을 거두었다.

4. 앙굴리말라라는 제자가 있었다. 그는 본래 끔찍한 살인마로서 수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빼앗았으나 세존에게 구원을 받아 불제자가 되었다.

어느 날 그는 마을에 탁발하러 나갔다가 지난날 출가하기 전에 지은 죄 때문에 사람들에게 박해를 받고 고생했다.

거리에서 탁발하던 중에 원한을 품고 있는 마을 사람들이 그

를 넘어뜨리고 마구 때려 그의 온몸이 피투성이가 되었다. 그는 가까스로 승방으로 돌아와서 세존의 발에 절을 하며 지난날 지은 악행에 대한 업보를 받을 기회를 주신 것에 감사하며 이렇게 말했다.

“세존이시여! 저는 본래 무해(無害)라는 이름을 가졌으면서도 어리석음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뺏고, 그 사람들의 피가 떨어지는 수많은 손가락을 모았기 때문에 지만이라는 이름을 얻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세존의 자비로 지혜를 얻게 되어 삼보에 귀의 하였습니다. 우마를 부릴 때는 고삐나 채찍을 씁니다마는 세존은 고삐나 채찍도 갈고리도 쓰지 않고 제 마음을 바로 잡아 주셨습니다.

오늘 저는 제가 받아야 할 과보를 받았습니다. 이제 살기를 원하지도 않고 죽고 싶지도 않습니다. 조용히 때가 이르기만을 기다리겠습니다.”

5. 마우드갈야야나는 샤리푸트라와 함께 세존의 2 대 제자

## 불국토의 건설

중의 한 사람이었다. 그런데 당시에 세존의 가르침이 물과 같이 촉촉하게 사람들의 마음에 배어들고 사람들이 그것을 간절한 마음으로 듣는 것을 보자 이교도의 지도자들이 시기하여 마우드갈 아야나의 설법을 여러 가지로 방해하였다.

그러나 어떠한 방해도 진실한 가르침이 널리 퍼져가는 것을 막을 수는 없었기에 결국 이교도들은 세존의 손발인 목련을 죽이려 했다.

한 번, 두 번, 다행이도 그 사람들의 습격을 피할 수 있었던 목련도 결국 세 번째에는 수 많은 이교도들에게 둘러싸여 그들의 폭력에 쓰러졌다.

목련은 잔인하기 이를 데 없는 폭력을 평온하게 받아들여 뼈가 으스러지고 살점이 이지러지는 가운데서도 깨달음의 마음에 조금도 방해 받지 않고 평화로운 마음으로 죽음에 들었다.

## 앙곳따라 니카야

비구들이여! 한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은 많은 사람들의 이익과 행복을 위하고 세간을 가엾게 여기시기 때문이며, 인간의 천상의 이익과 행복을 위하여 태어난 것이다. 그 한 사람이란 누구인가? 바로 여래, 응공, 정등각이다. 비구들이여! 이 분이야말로 그 한 사람인 바로 그 분이다.

비구들이여! 한 사람이 이 세상에 나타나기란 어려운 일이다. 그 한 사람이란 누구인가? 그는 여래, 응공, 정등각이다. 비구들이여! 이 분이야말로 그 한 사람인 바로 그 분이다.

비구들이여! 한 사람의 희유한 사람이 이 세상에 나타나기란 매우 어려운 일이다. 그 한 사람이란 누구인가? 그는 여래, 응공, 정등각이다. 비구들이여! 이 분이야말로 그 한 사람인 바로 그 분이다.

비구들이여! 한 사람이 이 세상을 떠나시니 많은 이들이 비통해 하였다. 그 한 사람이란 누구인가? 그는 여래, 응공, 정등각이다. 비구들이여! 이 분이야말로 그 한 사람인 바로 그 분이다.

비구들이여! 한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나시니 비할 데 없는 분이 탄생하신 것이다. 그 한 사람이란 누구인가? 그는 여래, 응공, 정등각이다. 비구들이여! 이 분이야말로 그 한 사람인 바로 그 분이다.

비구들이여! 한 사람이 이 세상에 나셨으니 위대한 눈, 위대한 밝음, 위대한 빛이 나타나신 것이다. 그 한 사람이란 누구인가? 그는 여래, 응공, 정등각이다. 비구들이여! 이 분이야말로 그 한 사람인 바로 그 분이다.

